

법무부·검찰청·경찰청·해양경찰청,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 개통

- 형사절차에서 국민 편의성 및 형사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

- 법무부·검찰청·경찰청·해양경찰청은 9월 19일(목) 오전 0시 ‘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’(이하 ‘차세대 키스’)을 개통하였습니다.
- 법무부·검찰청·경찰청·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키스 구축에 착수하여 2024년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.
- 차세대 키스는 △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△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·비대면 서비스 확대 △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하며,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※ 다만,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키스와 연계되는 2025년 6월부터 시행 예정

<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편의 증대 >

- 차세대 형사사법포털(kics.go.kr)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‘내 사건’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,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·경찰 등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되어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‘내 사건’을 조회할 수 있으며,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< 형사사법기관의 AI 기술 등 도입 >

-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, 핵심 키워드,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의 조서, 결정문,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.
- 그 외에도 차세대 키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, 사건 접수·처리,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·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.
- 차세대 키스의 개통으로 법무부·검찰청·경찰청·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.
- 각 기관은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키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,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하여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	책임자	단 장	김현아 (02-2110-3930)
		담당자	검 사	김진혁 (02-2110-3932)
담당 부서	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	책임자	팀 장	정진경 (02-2110-3144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희 (02-2110-3145)
담당 부서	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	책임자	교정관	김상원 (02-2110-8699)
		담당자	전산서기	이보경 (02-2110-8708)
담당 부서	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	책임자	과 장	이성범 (02-3480-2170)
		담당자	검 사	이한별 (02-3480-2229)
담당 부서	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	책임자	총 경	박종민 (02-3150-0205)
		담당자	경 정	김상엽 (02-3150-0206)
담당 부서	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옥현진 (032-835-2006)
		담당자	경 정	박상필 (032-835-2129)

